

완성차-부품기업 '원팀'으로... 생태계 협력 R&D 신설

- 완성차 양산계획에 맞춘 부품업계 핵심부품 개발로 자동차 생태계 협력
- 상용차 액추에이터 국산화 등 3개 과제에 과제별로 3년간 80억원, 총 240억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완성차 기업의 실제 양산 계획과 국내 부품기업의 기술개발을 기획 단계부터 직접 연결하는 '생태계 협력 R&D'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충남 천안)에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과 현대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수요기업 및 연구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D과제 협약식(MOU)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완성차 양산계획을 토대로 과제 기획, 기술개발, 실차 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에서 완성차 기업과 부품기업이 함께 협업하는 생태계 협력형 R&D로서 부품기업이 기술개발을 성공한 후에도 판로를 찾지 못해 사업화에 실패하던 기존 R&D의 한계(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됐다.

부품기업(기술개발)과 완성차(실차검증/양산적용)는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독과점 및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부품 공급망을 내재화한다. 정부는 3개 과제에 과제당 3년간 80억원, 총 24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되는 3개 과제는 오는 2029~2030년 완성차의 양산 라인에 즉시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미래차 시장의 핵심 기술 확보 및 공급망 자립에 직결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KG모빌리티가 추진하는 '차종 확장형 원통형 셀 배터리 시스템 개발'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성능을 넘어 다양한 차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해 차량 개발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되는 배터리 시스템은 2030년부터 양산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국내외의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저탄소 배출 시스템인 LPG 직분사 방식(LPDi) 하이브리드 SUV를 개발할 계획이다. 부품기업이 핵심부품을 개발하면 2029년부터 양산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국내 부품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선도 부품기업의 독과점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대형 상용차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한다. 개발한 부품은 2029년부터 트럭과 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번 생태계 협력형 R&D 지원방식이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부품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드는 실질적인 생태계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지금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스마트화로 미래차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며 “미래차 전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완성차, 부품사가 함께 ‘원팀’이 되어 생태계 차원의 선제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4320)
	자동차과	담당자	사무관	이충렬 (044-203-4324)



참고**간담회 및 행사 개요**

- **일시** : '26.7.27(月), 15:00~17:20
- **장소** : 한국자동차연구원 본원 대회의실(천안)
- **참석**
 - 정부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자동차과장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수요기업 : 현대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 연구기관 : 주관 연구기관 3곳 포함 총 20개 기관
 - 주관기관(3개사) : (주)위츠, (주)대흥정공, (주)대철

□ **세부 일정**(안)

구 분			내 용	비 고
MOU 및 간담회	15:00~15:10	(10')	3개 과제 발표	수요기업 중심
	15:10~15:20	(10')	수요기업 및 수행기관 MOU 체결	과제 통합 MOU(7개 기관) (산기평+수요기업+주관기업)
	15:20~15:23	(3')	모두발언	산업부
	15:23~16:20	(57')	미래차 전환 간담회	참석자
킵오프 회의	16:20~17:20	(60')	과제별 킵오프 회의	과제별 별도 진행

참고 2

생태계 협력 R&D 과제 개요

[과제 1] xEV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통형 셀 기반 표준 배터리시스템 개발

- ▶ 수요기업: 케이지모빌리티
- ▶ 수행기관: 위츠, 성우하이텍, 엘레트리, 비전디지텍, 삼보모터스, 유진정공, 경북대, KOTITI시험연구원, JIAT, 충북대, 한국자동차연구원
- ▶ 연구내용 : 국산 NCA 배터리를 활용하여 원통형 셀 기반 배터리팩 시스템 개발을 위해 최적 냉각제어 기술, 공용 BMS, 표준화된 전장품 등 개발
- ▶ 사업화 : '30년 SUV 양산차 적용 출시 목표



[과제 2] 240마력급 중형 SUV용 LPG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 ▶ 수요기업 : 르노코리아
- ▶ 수행기관 : 대흥정공, 동원테크, 화영, 에스피엘, 진양오토모티브, 한국자동차연구원
- ▶ 연구내용 : 고압직접분사(LPDi)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 국내 최초 개발을 위한 LPDi 전용 핵심부품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
- ▶ 사업화 : '29년 SUV 양산차 출시 목표



[과제 3] 대형 상용차의 연비 및 조종 안정성 향상을 위한 하중 분산용 액추에이터 개발

- ▶ 수요기업 : 현대자동차
- ▶ 수행기관 : 대철, 루치노바, 오토모테크, 지아이시스템, 경북대, 한국자동차연구원
- ▶ 연구내용 : 전량 수입중인 상용차용 하중 분산용 액추에이터 국산화를 위한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센서, 제어기 등 차고제어 부품 개발
- ▶ 사업화 : '29년 중형 트럭 적용 후 대형 상용차로 확대

